

## Impact of Depression and Anger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Cap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Min Hyang Park<sup>1#</sup>, Gye Hyun Jung<sup>2+</sup>

<sup>1</sup> Departmen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10 Deogam-gil, Neasu-eup, Cheongju, Korea

<sup>2</sup> Department of Nursing, Daejeon University, 62 Daehak-ro, Dong-gu, Daejeon, Korea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depression and anger 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cap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in Korea. First, depression was found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capability ( $r=-0.205$ ), which was significant at 99% confidence level, while trait anger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personal capability ( $r=-0.122$ ) at 95% confidence level. Seco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depression and anger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itial relationship, claim of right, emotional support on self-exposure, conflict management, and the entire interpersonal capability. The study results could be used as fundamental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of controlling depression and anger among nursing students.

**Key words:** anger, depression, interpersonal problem-solving capability,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들은 전문지식과 숙련된 간호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임상현장에 적응하는데 다양한 대상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거나 다양한 대상자들을 대하게 되므로 대인관계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러한 대인관계능력은 졸업 후에도 임상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에서 특히 정서문제는 대인관계문제와 연결지어 다루어졌

다. 20년 이상의 임상경험동안 환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진 연구결과 환자들의 가장 주된 호소는 바로 대인관계문제와 부정적 정서였으며(Horowitz, 1979: 5), 그중에서도 분노는 대인관계에서 빈번하게 경험되는 부정적 정서 중 가장 핵심이 되는 정서이다(Averill, 1983: 1145). 분노는 짜증을 내고 격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강도를 나타내는 정서상태로(Spielberger, *et al.*, 1985), 표현방식에 따라 대인관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노를 과도하게 표출할 경우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유발시켜 대인관계문제를 증가시킨다(Kang, 2011:

<sup>#</sup> The 1st author: Min Hyang Park, Tel. +82-43-210-8292, Fax. +82-43-210-8252, e-mail. jalhanda98@chsu.ac.kr

<sup>+</sup> Corresponding author: Gye Hyun Jung, Tel. +82-42-280-2652, Fax. +82-42-280-2650, e-mail. j500178@naver.com

Park, 2010). 또한 분노를 억제할 경우에도 당장은 문제를 나타내지 않는 자기방어적인 적응기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억압적 대처가 장기화 되거나 심해질 때 우울, 신경증,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며 (Enright & Fitzgibbons, 2000),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는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킨다(Han, *et. al.*, 2008: 109).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역기능적 분노표현방식과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 보면, 개인이 분노를 지나치게 표출할 때,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 2007).

반면 개인이 분노를 억제 할수록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문제의 수준이 높았고(Kang, 2011), 분노를 억제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분노를 억제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며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는 회피성향의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Kim, *et. al.*, 2011; Park, *et. al.*, 2011). 대표적으로 분노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문제는 우울증상이다(Jung, 2008). 분노표출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부정적 강화는 늘어나고 긍정적 강화는 줄어들어 우울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Lewinsohn, 1974: 112). 실제로 분노표출과 우울증상은 정적 상관 관계를 보이며(Suh, 2001; Jeong, 2012; Han, *et. al.*, 2008: 109), 분노표출이 높은 사람은 우울증상의 수준이 더 높다고 밝혀졌다(Go, 1997).

다양한 정신건강 요인 중에서도 우울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우울은 스트레스와 관련한 부적응적 반응으로 청소년기에 우울을 겪은 사람은 성인기에도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밝혀졌다(Kwak, *et. al.*, 1993 ; Lim, *et. al.*, 2000: 209).

우울은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어렵게 하며, 정서문제로 시작하여 무력증, 피로감, 권태감등의 신체적 증상까지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가져온다(Ha, *et. al.*, 2004: 263).

대학생의 우울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좀 더 높다. 2008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19세 이상 우울은 14% 였다. 남자는 10%, 여자는 19%로 여자가 남자보다 9% 높았다. 또한 19세 이상 우울을 경험한 경우가 2007년 12%에서 2008년에 14%로 2% 상승하였다(Health and Welfar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2008).

더욱이, 간호대학생들은 환자의 건강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환자 개개인과 치료적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인격을 활용해야 하고, 대인관계 접근법과 성향을 이해하고 수정하는 일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울과 분노로 이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02: 621; Jeong, *et. al.*,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우울 및 분노 조절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우울

#### 1) 우울의 개념

히포크라테스(Hipocrates)는 기원전 100여년 경에 임상적 정신질환으로서의 “Melancholia(우울)”를 언급한 바 있으며, Bleuler에 이르러 우울의 3대 증상으로 우울한 감정상태, 정신운동의 지연, 그리고 의지의 억압을 밝혀내었다(Lee & Lee, 2003: 1).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도 우울증의 상태를 정신적 혼미, 말더듬, 신체적 게으름 등으로 파악하여 치료방법의 근거로 이용하였다. 16-17세기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우울과 같은 정서적 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우울증이 신체와 정신의 상관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이론과 우울증이 독립적인 질병으로서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나타나기도 하였다(Jeong, 2009).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으로 슬픔, 절망, 의기소침 등의 경

협으로 우울을 표현한다. 이러한 감정적 상태가 기분의 변화 수준에 머문다면 그것을 우울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지나쳐서 슬픔, 절망, 의기소침한 느낌으로 확장된다면 그것은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며, 심지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증세와 증상이 수반되는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울증은 매우 흔한 심리장애인 동시에 심해지면 자살에 대한 사고와 실제 자살 시도로 이어지기에 치명적인 장애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100명 중 1명이 자살로 사망한다고 한다(Kim, 2017).

## 2. 분노

Spielberger, *et. al.*(1985)은 분노를 상태분노와 특성분노로 구분하였다. 상태분노는 분노유발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 반응으로 일시적인 정서다.

특성분노란 상황과 시간에 관련 없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개인의 분노성향을 의미하는데, 이는 분노유발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동일한 상황에서도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분노를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Kang, 2016).

Spielberger(1985)에 의하면 분노표현양상은 분노표출, 분노억압, 분노조절로 구분된다. 분노표출은 분노를 타인에게 비난, 욕설, 언어폭력, 모욕을 줌으로써 분노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Spielbergeretal, 1985). 분노억압은 화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분노를 내부로 돌리거나 억압하는 것, 분노유발과 관련된 사고와 기억 분노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Spielbergeretal, 1985)을 말한다. 분노조절은 화가 난 상황을 자각하고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하는 것으로 냉정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다(Spielbergeretal, 1985).

## 2. 우울 및 분노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대인관계 어려움은 심리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임상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환자나 내담자들이

가장 흔히 호소하는 심리적 갈등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이다(Horowitz, 1996: 5).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러한 상황은 우울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Jeong(2005)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 비판적, 공격적이며, 타인의 입장이나 처지를 배려하거나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문제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하였으며, 타인의 호감을 얻기 위해 타인의 욕구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Chon(2004)의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특성 분노가 높은 그룹은 낮은 그룹에 비해 타인을 대할 때, 경쟁적, 공격적이고 과시적이고 자기 도취적이며 반항적이고 불신적이라고 하였다. 분노의 내적억제양식과 대인관계성향을 알아본 결과, 분노의 내적 억제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역할 성향에서 지배적이고 우월적이며,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관계에서도 더 사교적이며 표현 성향에서도 공격적이고, 과시적이며 자기도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 성향에서는 덜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노를 표출하는 경향이 있는 집단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며 공격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가설을 도식화 하고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연구대상

자료수집 기간과 연구대상은 2017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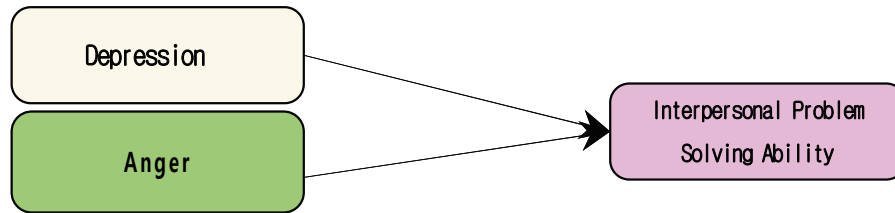


Figure 1. Framework

총복에 소재한 290명의 간호대학생들이었다. 자료수집을 위해 간호 대학생들에게 동의 허락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문항에 체크하도록 하였으며, 총 29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이 중 부실한 자료 18부를 제외하고 272부를 연구결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의 윤리적 측면

연구동의서는 연구목적, 익명성, 비밀보장에 대한 내용과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중단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항목을 포함하였다. 연구자만이 알 수 있도록 수집된 모든 자료를 처리하고, 연구논문이 자료로 발표 된 이후에는 소각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 4.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측정 하고자 하는 변수는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하였으며, 연구 개념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하 알파테스트(Cronbach alpha test)를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평균과 표준편차 분석에는 기술통계(Descriptive analysis)를 통해 분석하였고,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영향관계 등의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자료의 유의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 1) 우울척도

대학생의 현재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eck의

우울척도를 Lee & Song(1991: 98-113)이 수정,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우울척도는 우울의 정서, 인지, 동기 및 생리적 증상을 영역별로 포함하고 있는 척도로서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진술 중, 최근 일주일간의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별 진술문은 0점에서 3점으로 편성되어 있다. 총 합계가 높을수록 보고자의 우울 정도의 심각함을 나타낸다.

#### 2) 분노

대학생의 분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1985)가 개발하고 Lee, et. al.(1997: 33-50)이 변안 수정한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한 척도 내에서 분노경험과 분노표현을 같은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이다. STAXI의 분노경험에는 상태분노 10문항, 특성분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노표현에는 분노조절 8문항, 분노억제 8문항, 분노표출 8문항으로 각각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분노경험인 상태분노는 현재 느끼고 있는 분노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 특성분노는 평소 분노에 대한 반응과 분노기질을 측정하는 2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구성된다. 각 문항에서 상태분노는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 ‘때로 그렇다(2)’, ‘자주 그렇다(3)’, ‘거의 언제나 그렇다(4)’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특성분노 역시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아니다(1)’, ‘약간 그렇다(2)’, ‘상당히 그렇다(3)’, ‘매우 그렇다(4)’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분노표현 영역은 특성분노와 구성이 같다. 각각의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정도 또는 분노를 표현하는 방식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대인관계문제 해결 능력

Buhrmester, *et. al.*(1988)이 개발한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검사(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를 Kim & Kim(2009: 1573-159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문항은 40문항이며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에서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음. 이 척도는 5가지로 하위 차원-처음관계 맺기, 권리주장, 자기노출, 정서적인 지지, 대인갈등 다루기로 조사한다.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은 호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능력을 말하고, 자기노출은 친밀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고,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것이며, 정서적 지지는 타인의 행동이나 반응을 알아내어 타인을 지지하고 조언 해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 I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나이의 경우

18세 이하가 12.1%, 20세가 36.0%, 21세가 27.6%, 22세 이상이 24.3%로 나타났으며, 성별의 경우 남자가 16.2%, 여자가 83.8%로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26.8%, 불교가 6.6%, 천주교가 8.1%, 무교가 58.5%로 나타났으며, 동거인 수의 경우 3명 이하가 38.6%, 4명이 45.6%, 5명 이상이 15.8%로 나타났다. 월 소득액의 경우 하(400만 원 이하)가 27.9%, 중(401-500만원)이 16.9%, 상(501만 원 이상)이 16.5%, 무응답이 38.6%로 나타났다. 소득이 낮은 경우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Table 1〉).

##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특정변수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항목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를 이용하였다. 사회과학에서  $\alpha$ 값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정서적지지에서 9번 항목을 제외한 Cronbach's  $\alpha$ 값이 .659~.944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는 내적 일관성 있다(〈Table 2〉).

Table 1. Participants' socio-demographic information

(N=272)

Variable	Categories	Frequency	Percentage(%)
Age	≤18	33	12.1%
	19-20	98	36.0%
	21	75	27.6%
	22	66	24.3%
Gender	Male	44	16.2%
	Female	228	83.8%
Religion	Christian	73	26.8%
	Buddhism	18	6.6%
	Catholic	22	8.1%
	atheism	159	58.5%
Family Living Together	≤3	105	38.6%
	4	124	45.6%
	≥5	43	15.8%
Monthly Income(10,000won)	≤400	76	27.9%
	401 - 500	46	16.9%
	≥501	45	16.5%
	No answer	105	38.6%
total		272	100.0%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s	Cronbach's $\alpha$	items
Depressed	.857	21
First Relationship	.812	8
Claim	.712	8
Self-Exposure	.659	8
Emotional Support	.725	8(9 Delete)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666	8
Interpersonal Skills	.844	40
State Anger	.941	10
Character Anger	.886	10
Anger Control	.820	8
Anger-In	.788	8
Anger Expression	.796	8
Anger-Out	.828	24

### 3. 연구개념 기술통계

조사대상자들의 연구개념 평균 분포를 분석한 결과 우울이 1.52±.41점, 처음관계 맺기가 3.48±.61점, 권리 주장이 3.53±.55점, 자기노출이 3.56±.48점, 정서적 지지가 3.69±.46점, 대인갈등다루기가 3.70±.44점,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이 3.57±.38점, 상태분노가 1.31±.53점, 특성분노가 1.79±.55점, 분노조절이 2.32±.56점, 분노억제가 1.85±.54점, 분노표출이 1.65±.46점, 분노표현이 1.94±.36점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우울, 분노,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관련 평균 수준을 살펴보면, 대인갈등 다루기가 가장 높고, 정서적 지지가 두 번째로 높으며, 상태분노가 가장 낮았다(〈Table 3〉).

### 4. 상관관계 분석

우울과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205$ 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상태분노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174$ 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성분노와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122$ 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분노조절과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220$ 로 유의한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분노억제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176$ 로 나타나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분노표출과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164$ 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분노표현과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037$ 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다(〈Table 4〉).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s	N	Minimum	Maximum	Mean	SD
Depressed	272	1.00	4.19	1.52	.41
State Anger	272	1.00	4.40	1.31	.53
Character Anger	272	1.00	4.10	1.79	.55
Anger Control	272	1.00	4.00	2.32	.56
Anger-In	272	1.00	3.75	1.85	.54
Anger Expression	272	1.00	4.00	1.65	.46
Anger-Out	272	1.00	3.42	1.94	.36
First Relationship	272	2.00	5.00	3.48	.61
Claim	272	1.75	5.00	3.53	.55
Self-Exposure	272	2.25	4.75	3.56	.48
Emotional Support	272	2.14	4.86	3.69	.46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272	2.50	5.00	3.70	.44
Interpersonal Skills	272	2.28	4.70	3.57	.38

Table 4. Correlation analysis(Pearson's correlation)

Variables	Depressed	State anger	Character anger	Anger control	Anger-in	Anger expression	Anger-out	First relationship	Claim	Self exposure	Emotional support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Interpersonal skills
Depressed	1												
State Anger	.489 (**)	1											
Character Anger	.342 (**)	.527 (**)	1										
Anger Control	.074	.036	-.035	1									
Anger-In	.297 (**)	.309 (**)	.404 (**)	.227 (**)	1								
Anger Expression	.280 (**)	.426 (**)	.597 (**)	-.079	.532 (**)	1							
Anger-Out	.303 (**)	.351 (**)	.434 (**)	.600 (**)	.837 (**)	.645 (**)	1						
First Relationship	-.227 (**)	-.094	.131 (*)	.090	-.149 (*)	-.077	-.058	1					
Claim	-.095	-.007	.129 (*)	.027	-.132 (*)	.045	-.033	.350 (**)	1				
Self-Exposure	-.121 (*)	-.137 (*)	.020	.146 (*)	-.074	.001	.042	.428 (**)	.356 (**)	1			
Emotional Support	-.185 (**)	-.248 (**)	-.210 (**)	.254 (**)	-.113	-.236 (**)	-.019	.419 (**)	.202 (**)	.572 (**)	1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158 (**)	.207 (**)	-.257 (**)	.273 (**)	-.145 (*)	-.362 (**)	-.081	.314 (**)	.140 (*)	.431 (**)	.702 (**)	1	
Interpersonal Skills	-.205 (**)	-.174 (**)	-.122 (*)	.220 (**)	-.176 (**)	-.164 (**)	-.037	.701 (**)	.563 (**)	.720 (**)	.777 (**)	.656 (**)	1

5. 가설검증

1) 연구가설 1.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 중 처음관계 맺기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처음관계 맺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 R<sup>2</sup>=.058, F=4.129, p<.01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1이 채택되었으며 회

귀식의 설명력은 5.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우울(β=-.233, p<.01)은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2) 연구가설 2.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권리주장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권리 주장

Table 5.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1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β	Standard error	β			Tolerance	VIF
Constant	4.005	.214		18.694	.000		
Depressed	-.348	.103	-.233	-3.372	.001**	.738	1.355
State Anger	.068	.087	.059	0.780	.436	.608	1.644
Character Anger	-.108	.082	-.098	-1.327	.186	.649	1.541
Anger-In	.057	.113	.034	0.502	.616	.777	1.287

R<sup>2</sup>=.058, F=4.129, p=.003\*\*

\*\*\* p<0.001, \*\* p<0.01

Table 6.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2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669	.195		18.814	.000		
Depressed	-.177	.094	-.131	-1.884	.061	.738	1.355
State Anger	-.035	.079	-.034	-0.441	.660	.608	1.644
Character Anger	.227	.074	.227	3.053	.002**	.649	1.541
Anger -In	-.121	.103	-.080	-1.176	.240	.777	1.287

R<sup>2</sup>=.045, F=3.117, p=.016\*

\* Dependent variable: Claim

\*\*\* p<0.001, \*\* p<0.01, \* p<0.05

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한 결과 회귀식은 R<sup>2</sup>=.045, F=3.117, p<.05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2가 채택되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5%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특성분노( $\beta$ =.227, p<.01)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3) 연구가설 3.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 중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 회귀식은 R<sup>2</sup>=.042, F=2.936, p<.05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3이 채택되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상태분노( $\beta$ =-.177, p<.05)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7>).

4) 연구가설 4.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정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 중 정서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 회귀식은 R<sup>2</sup>=.088, F=6.412, p<.001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4가 채택 되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8.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분노표현( $\beta$ =.132, p<.05)이 유의한 영향을 주고, 상태분노( $\beta$ =-.173, p<.05), 특성분노( $\beta$ =-.145, p<.05)가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8>).

5) 연구가설 5.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대인갈등다루기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중 대인갈등 다루기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한 결과 R<sup>2</sup>=.078, F=5.684, p<.001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Table 7.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3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552	.171		20.720	.000		
Depressed	-.117	.083	-.098	-1.412	.159	.738	1.355
State Anger	-.160	.069	-.177	-2.309	.022*	.608	1.644
Character Anger	.097	.065	.110	1.481	.140	.649	1.541
Anger Expression	.114	.090	.086	1.268	.206	.777	1.287

R<sup>2</sup>=.042, F=2.936, p=.021\*

\* Dependent variable: Self-exposure

\*\*\* p<0.001, \* p<0.05

Table 8.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4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942	.162		24.401	.000		
Depressed	-.104	.078	-.091	-1.337	.182	.738	1.355
State Anger	-.151	.065	-.173	-2.314	.021*	.608	1.644
Character Anger	-.123	.062	-.145	-1.993	.047*	.649	1.541
Anger -In	.169	.085	.132	1.988	.048*	.777	1.287

R<sup>2</sup>=.088, F=6.412, p=.000\*\*\*

\* Dependent variable: Emotional support

\*\*\* p<0.001, \* p<0.05

Table 9.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5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4.060	.153		26.521	0.000		
Depressed	-.066	.074	-.062	-0.900	.369	.738	1.355
State Anger	-.069	.062	-.083	-1.108	.269	.608	1.644
Character Anger	-.176	.058	-.219	-3.009	.003**	.649	1.541
Anger Expression	.076	.081	.063	0.939	.349	.777	1.287

R<sup>2</sup>=.078, F=5.684, p=.000\*\*\*

\* Dependent variable: Interpersonal conflict handling

\*\*\* p<0.001\*\* p<0.01

나타났다. 연구가설 5가 채택되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7.8%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특성분노( $\beta$ =-.219, p<.01)가 음의 영향을 주고 있다(<Table 9>).

- 6) 연구가설 6.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한 결과 R<sup>2</sup>=.053, F=3.715, p<.01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 6이 채택되었으며, 회귀식의 설명력은 5.3%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별로 보면 우울( $\beta$ =-.164, p<.05)이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Table 10. Results of a multi-regression analysis 6

Variables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eta$	Standard Error	$\beta$			Tolerance	VIF
(Constant)	3.819	.135		28.185	0.000		
Depressed	-.154	.065	-.164	-2.359	.019*	.738	1.355
State Anger	-.067	.055	-.093	-1.219	.224	.608	1.644
Character Anger	-.031	.052	-.045	-0.607	.545	.649	1.541
Anger Expression	.069	.071	.065	0.962	.337	.777	1.287

R<sup>2</sup>=.053, F=3.715, p=.006\*\*

\* Dependent variable: Interpersonal conflict handling

\*\* p<0.01, \* p<0.05

## V.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 및 분노의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 중재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 우울이  $1.52 \pm .41$ 점, 처음관계 맺기가  $3.48 \pm .61$ 점, 권리 주장이  $3.53 \pm .55$ 점, 자기노출이  $3.56 \pm .48$ 점, 정서적 지지가  $3.69 \pm .46$ 점, 대인갈등다루기가  $3.70 \pm .44$ 점,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이  $3.57 \pm .38$ 점, 상태분노가  $1.31 \pm .53$ 점, 특성분노가  $1.79 \pm .55$ 점, 분노조절이  $2.32 \pm .56$ 점, 분노억제가  $1.85 \pm .54$ 점, 분노표출이  $1.65 \pm .46$ 점, 분노표현이  $1.94 \pm .36$ 점, 위협이  $.73 \pm .67$ 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 분석결과,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과 상태분노 사이에는  $r = -0.174$ ,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과 특성분노 사이에는  $r = -0.122$ ,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과 분노조절 사이에는  $r = 0.220$ 로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과 분노억제 사이에는  $r = -0.176$ ,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과 분노표출 사이에는  $r = -0.164$ 로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인관계문제해결능력과 분노표현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 = -0.037$ 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음관계( $R^2 = .058$ ,  $F = 4.129$ ,  $p < .01$ ), 권리주장( $R^2 = .045$ ,  $F = 3.117$ ,  $p < .05$ ), 자기노출( $R^2 = .042$ ,  $F = 2.936$ ,  $p < .05$ )에 정서적 지지( $R^2 = .088$ ,  $F = 6.412$ ,  $p < .001$ ), 갈등 다루기( $R^2 = .078$ ,  $F = 5.684$ ,  $p < .001$ ),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전체( $R^2 = .053$ ,  $F = 3.715$ ,  $p < .01$ )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 우울 및 분노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우울의 경우 분노조절을 적절한 방법으로 유도할 경우 호전 될 확률이 높아진다. 분노를 느꼈을 때 화가 난 이유와 분노를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무엇

을 하면 되는지 등을 판단하고 실행할 때, 우울수준이 감소되므로, 우울을 해소하기 위한 분노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노조절은 간호대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만족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우울을 감소시키고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을 높여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References

- Averill, J. R. 1983. Studies On Anger And Aggression: Implications for Theories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38(11): 1145-1160.
- Buhrmester, D., W. Furman, M. T. Wittenberg, and H. T. Reis. 1988. Five Domain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91-1008.
- Chon, Kyum Koo, Dong Yeun Kim, and Joon Suk Yi. 1997. Development of the STAXI-K.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7(1): 33-50.
- Chun, Hyun.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Level & Anger Expression Mode and Interpersonal Tendency for Male Students of a High School.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Daegu University.
- Ha, Eun Hye, Kyung Ja Oh, Dong Ho Song, and Ji Hyoen Kang. 2004. The Effects of Cognitive-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and Anxiety Disorders in Adolescents: A Preliminary Study. *Korean Journal Clinical Psychology*. 23: 263-279.
- Han, Dong Hwa and Hyun Joo Song. 2008. A Study on Anger Expression Type of Adolescents Focusing on Anxiety, De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sychotherapy: Multidisciplinary Approach*. 8(2): 109-112.
- Health and Welfar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2008. *National Health Statistics: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 Survey*. The 4th 2nd Year 2008.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Jeong, Mi Ri. 2005. The Effects of Anger and Rumination about of Stressful Life Event on Interpersonal Problem in Under Graduate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 Jeong, Min Kyoung. 2012. The Relationships Between Anger Expression Mode and Anxiety Dep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Keimyung University.
- Jeong, Yeong Seong. 2003. A Study on the Treatment of Depression through Spiritual Training.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Mokwon University.
- Jung, Ok Bun. 2008. *Understanding Youth Development*. Seoul: Hakjisa.
- Kang, Ji Yeon.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Life Stress, Anger Express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Kang, Min Hye. 2016. The Effects of Group Game Play Therapy Program on Children's Trait-Anger, Anger Expression and Self-esteem.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 Kim, Hyun Ju and Jung Yoon Lee.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Anger Expression on Adolescents: Mediating Effects of Internalized Shame. *Counseling Research*. 12(3): 965-981.
- Kim, Soo Im and Chang Dai Kim. 2009.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on Career Development and Choices: A Literature Review in Korea.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573-1591.
- Kim, Yeo Jin.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 Focused Attention and Self Oriented Empath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Yeungnam University.
- Ko, Yun Kyoung. 2007. Anger Expression Attitude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Styl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oh, Eun Young. 1997. The Effects of Anger Expression Style and Anger Expression Appropriateness on Depression.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 Kwak, Keum Joo and Mun Eun Young. 1993. The Relation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Depression and Antisocial Behavior in Early Adolescence.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1): 31-40.
- Lee, Min Su and Min Gyu Lee. 2003. A Development of Korea Depression Scale. *Neuropsychology*. 42(4): 1.
- Lee, Young Ho and Jong Yong Song. 1991.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0(1): 98-113.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 Friedman and M.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 Washington, DC: Winston-Wiley.
- Lim, Myung Ho, Su Chul Cho, Ki Chung Paik, Kyung Kyu Lee, Hyun Woo Kim, and Kang E Hong. 2000. Clinical Characteristics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with Mood Disorder. *Korean Journal Child and Ado Psychiatric*. 11(2): 209-220.
- Park, Eun Hae. 2010. The Effects of Depressive Vulnerability and Anger Expression Mode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 Park, Hyun Suk, Yeong Ju Bae, and Seon Yeong Jung. 2002. A Student on Self Esteem, Self 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 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Psychiatric Nurse*. 11: 621-631.
- Park, Sang Hyuk, Yun Kyoung Loh, Eun Hye Cho, and Dong Gwi Lee. 2011. Differences in Interpersonal Problems and Happiness by the Subgroups of Anger Expression Style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ociety and Personality*. 25(3): 77-92.
- Spielberger, C. D., E. H. Johnson, S. F. Russell, R. J. Crane, G. A. Jacobs, and T. J. Worden.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ger: Construction and Express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M. A. Chesney and R. H. Rosenman(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s.*  
Washington DC: Hemisphere.

Suh, Song Yi. 2001. The Relationships among Social Support, Anger Expression Style, and Depression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Honglk University.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강민혜. 2016. 집단개입놀이치료를 통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특성분노 및 분노표현방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지연. 2011.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 분노표현 및 대인관계 문제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윤경. 2007. 분노표현태도와 대인관계문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은영. 1997. 분노표현방식과 분노표현의 적절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곽금주, 문은영. 1993. 사춘기 남녀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과 우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1): 31-40.

김수임, 김창대. 2009.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발달 및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의 동향. 한국상담학회. 10(3): 1573-1591.

김여진. 2017. 우울과 대인관계에서 자기초점적 주의와 자기 지향적 공감의 매개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주, 이정윤. 2011. 청소년의 애착과 분노표현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3): 965-981.

박상혁, 노윤경, 조은혜, 이동귀. 2011. 분노표현양식에 따른 하위 집단 간 대인관계문제 및 행복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3): 77-92.

박은혜. 2010. 우울취약성과 분노표현양식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현숙, 배영주, 정선영. 200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 대응방법 및 학업. 취업 스트레스에 관한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1(4): 621-631.

서송이. 2001.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분노표현방식 및 우울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민수 이민규. 2003. 한국우울증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42(4): 1.

이용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임명호, 조수철, 백기청, 이경규, 김현우, 홍강의. 2000. 입원한 기분장애 소아청소년의 임상 특성. 소아청소년의학. 11(2): 209-220.

전경구, 한덕용, 이장호, 이준석. 1997. 한국판 STAXI-K 개발 연구. 미술치료연구. 7(1):33-50.

정미리. 2005. 분노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반추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민경. 2012. 초등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불안 및 우울간의 관계.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영성. 2003. 여성 훈련을 통한 우울증 치료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천현. 2004. 남자고등학생의 분노수준 및 분노표현양식과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동화, 송현주. 2008. 청소년의 분노표현방식에 대한 연구 고찰: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심리치료: 다학제적접근. 8(2): 109-112.

Received: Dec. 26, 2017 / Revised: Feb. 6, 2018 / Accepted: Feb. 28, 2018

##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우울과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205$ 로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특성분노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사이에는 상관크기가  $r=-0.122$ 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우울 및 분노가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중회귀분석결과, 처음관계, 권리주장, 자기노출에 정서적 지지, 갈등 다루기,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우울 및 분노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분노, 우울, 대인관계문제 해결능력, 간호 대학생

Profiles **Min Hyang Park** : She received her Ph.D.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And She finished completing of nursing science doctor's course in Korea University. She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gbuk Health & Science University, Cheongju, Korea.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the nursing management, conflict management, and child's health problems(jalhanda98@chsu.ac.kr).

**Gye Hyun Jung** : She received her Ph.D. from Daejeon University, Korea. She is an assist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jeon University, Daejeon, Korea. Her recent research focuses on the department of emergency nursing and trauma, education(j500178@naver.com).